

한 눈으로 보는 경제

6일

코스피지수	2227.94	▲	+62.31
코스닥지수	672.69	▲	+11.37
日 닛케이 지수	2만3873.59	▲	+554.03
中 상하이 종합	2866.51	▲	+48.4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311	▲	+0.004
환율 (원·달러)	1179.80	▼	-11.7
국내금값 (원/그램 g)	5만9199.28	▼	-105.35



LG, 캐딜락에 ‘디지털 콕핏’ 공급

LG전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제네럴 모터스(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에 플라스틱 올레드(P-OLED) 기반 ‘디지털 콕핏’(사진) 시스템을 세계 최초 공급한다. 2021년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에 공급하는 디지털 콕핏은 초고해상도 P-OLED 디스플레이와 독자 개발한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 두 개를 포함해 화면 3개를 하나로 합친 형태인 38인치 P-OLED 디스플레이는 해상도가 4K(3840×2160)를 넘어 시인성이 뛰어나다.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 디자인, 넓은 시야각 등이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김병근 기자



“김태희의 봄을 부르는 트렌치코트”

배우 김태희가 모델로 활동하는 세정 올리비아로렌이 봄 시즌 화보를 공개했다. ‘김태희가 전하는 봄 이야기’라는 콘셉트의 화보에서 김태희는 화사한 블라우스와 체크무늬 치마에 분홍색 트렌치코트를 걸쳐 봄의 감성을 선보였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세정

※ 교육·퍼즐은 11면에 옮겨 실습니다.

올 밸런타인 키워드는 ‘배달·컬래버·라인업’

연휴·주말 안 겹쳐 대박매출 기대
CU “주문하면 선물 배달해 드려요”
GS25, 펭수 손잡고 특별세트 출시
그랜드로쉐·트롤리세트 등도 눈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편의점들이 이색 아이디어 상품으로 승부를 걸었다.

편의점들은 올해 밸런타인데이가 설 연휴와 겹치지 않고 날짜도 금요일이라 예년보다 높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문 고객이 줄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지만, 편의점은 근거리 유통망이란 접근성 덕분에 상대적으로 영업에 큰 지장을 입지 않고 있다.

C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새 소비 트렌드가 된 ‘언택트(untact) 쇼핑’에 착안,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밸런타인 배달 서비스’를 내놓았다. 주문을 하면 초콜릿 30개를 요기요 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전국 4000개 배달 서비스 운영점포 중 수취 가능한 주



밸런타인 펭수세트 등 GS25의 밸런타인데이 상품군(왼쪽)과 이마트24에서 밸런타인데이 관련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고객. 편의점 업계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이색 아이디어 상품 마련에 분주하다.



소의 반경 1.5km 내 점포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이용 가능하다.

GS25는 이색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 다. 인기 캐릭터 펭수와 손잡은 ‘밸런타인 펭수세트’에는 초콜릿·과자와 함께 스티커·노트 등 펭수 관련 굿즈를 동봉했다. 또 애니메이션 유투버 총명명, 박토벤이라 불리는 트로트 작곡가 박현우와 협업한 상품도 내놓았다.

이색 상품 라인업도 눈에 띈다. 세븐 일레븐은 벨기에 마카롱과 SNS 핫 아이템인 몰티저스 초코볼의 바닐라 셰이크 맛을, 미니스톱은 지구 모양의 젤리에 포도 시럽을 넣은 지구젤리 등 독일 젤리 브랜드 트롤리 기획 세트를 출시했다. CU는 또한 뉴트로 콘셉트의 추억의 냄비과자와 기존 페레로로쉐 초콜릿보다 18배 큰 그랜드로쉐를 판매한다.

이밖에 이마트24는 밸런타인데이를 ‘가족과 친구와 즐기는 날’로 개념을 재정의해 초콜릿, 캔디뿐 아니라 와인, 쿠키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했다.

유창식 이마트24 영업마케팅팀장은 “달콤한 초콜릿과 쿠키, 향긋한 와인으로 연인, 가족, 친구들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조현아 물먹이기? 대한항공, 송현동부지·왕산마리나 매각한다

조 전부사장이 애착 많은 부문
이사회 의결…“재무구조 개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3월 지주사 한진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력기업인 대한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6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 중

로구 송현동 호텔 부지와 왕산마리나 매각을 결정했다. 경북궁 옆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3만6642㎡)는 현재 조 회장과 맞서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원군인 행동주의펀드 KCGI가 지속적으로 매각을 요구한 지역이다.

공교롭게도 송현동 부지에서 추진했던 한옥호텔 건립은 현재 KCGI와 손잡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의욕적으로

주도했던 프로젝트였으나 ‘땅콩회항’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백지화됐다.

함께 매각을 추진하는 왕산레저개발은 해양레저시설인 용유왕산마리나의 운영사로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은 연내 매각 완료를 목표로 주간사 선정 및 매각광고 등 관련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안건도 의결했다. 우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사내이사인 우기홍 사장이 위원을 사임하고, 사외이사인 김동제 이사를 새 위원으로 선임 의결했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도 의결했다. 거버넌스위원회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김동제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폭스바겐 ‘럭셔리 SUV’ 신형 투아렉이 왔다

첨단기능 총집합…6일 공식 출시

폭스바겐코리아는 6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에서 플래그십 SUV인 3세대 신형 투아렉의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신형 투아렉은 폭스바겐의 세로 배치형 모듈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전장 4880mm 이고 전폭은 1985mm다. 이전 모델 대비 각각 79mm 및 45mm가 늘어났다. 전고는 1700mm(에어 서스펜션 적용시 1670mm)로 9mm 낮아져 더욱 역동적인 비율로 완성됐다. 적재용량은 기본 810L이고 2열 폴딩 시 1800L까지 늘어난다.

내부에는 세계 최초로 ‘이노비전 콕핏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15인치 TFT 터치스크린과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연

결해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터치와 제스처 인식이 가능하다.

파워트레인은 3.0리터 V6 디젤 엔진과 4.0리터 V8 엔진 두 가지다. 먼저 고객인도를 시작한 3.0리터 V형 6기통 디젤엔진의 3.0 TDI 모델은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61.2kg·m다. 시속 100km까지 6.1초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35km다. 스타트&스톱 시스템과 코스팅 기능을 기본 적용했고 공인연비는 10.3km/l(도심/고속:9.5km/l, 11.5km/l)다. 4.0리터 V형 8기통 디젤엔진은 2분기에 출시 예정이다.

신형 투아렉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기본 적용했다. 터널 출구나 교차로에서 접근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감지하고 비상정지를 작동시키는 ‘전방 크로스 트래픽 어시스트’, 충



6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에서 공개한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신형 투아렉. 사진제공 | 폭스바겐코리아

돌위험이 감지되면 안전벨트를 조이고 창문과 파노라마 선루프가 자동으로 닫히는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시스템’ 등을 기

본 적용했다. 3.0 TDI 모델의 가격은 8890만~1억90만 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아트라스비엑스, 레이싱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기술 전수…차량정비 등 지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후원하는 ‘아트라스비엑스 모터스포츠’가 올해부터 레이싱 드라이버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아트라스비엑스 주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젊은 레이싱 드라이버 유망주들이 국내 대표 선수로 거듭나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아트라스비엑스 모터스포츠의 베테랑 선수들이 멘토를 맡아 10여년 간 축적해 온 레이싱 관련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는 트레이닝을

진행한다. 또한 보유한 장비 및 인력을 통해 차량 정비와 관리 등 레이싱과 관련된 제반 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지원 대상으로는 2019년 팀 폭스 소속으로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ASA 6000 클래스에 출전한 김민상 선수가 선발됐다. 김민상 선수는 이번 시즌에는 ‘팀 폭스 아트라스비엑스’ 소속으로 CJ 슈퍼레이스 ASA6000 클래스에 참가할 예정이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부문 시즌 종합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항우 아트라스비엑스 모터스포츠 대표 겸 선수는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 프로그램



2019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출전한 아트라스비엑스 모터스포츠 차량. 사진제공 | 한국타이어

을 통해 많은 선수들이 우리나라 대표 레이싱 드라이버로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기아차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 출시

기아자동차가 ‘기아 레드 멤버스 신용카드 에디션2’를 출시했다. 3등급으로 운영하던 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했다. 포인트 적립을 강화해 소비 성향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개선했다. 가맹점 이용액의 0.5~1%가 M포인트로 적립되며, 제휴처에서 사용하면 0.5~2%를 레드 포인트로 추가 적립된다. 신차 구매시 세이프-오토 이용 및 카드결제 200만 원 이상일 때 2만 레드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한 당일 이용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오토류 정비 2만 원 할인 쿠폰, GS칼텍스 리터당 60 M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